

\*포커스



# 립스틱 팔아

글 편집실

# 에이즈 감염인 돕는다!



대부분의 성인 여성  
이래부터 거의 매일 사용  
하는 립스틱, 그 립스  
틱을 구입하면 전 세계  
에 있는 에이즈 감염인

을 도울 수 있다? 개인의 미적 추구를 위해 사용하는 립스틱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맥(MAC) 매장으로 가보자.

전 세계 어느 맥 매장을 방문 하든지 6가지 종류의 비

바 글램 립스틱(lipstick)과 립글라스(lipglass)를 찾아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바 글램 캠페인 현장이다.

코스메틱 브랜드 MAC은 지난 1992년부터 맥 에이  
즈 펀드(MAC AIDS FUND) 이하 MAF를 출범시켜  
활발한 펀드 조성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비바 글램 캠페인은 비바 글램 시리즈의 립스틱과 립  
글라스의 이름으로 판매 금액의 100% MAF로 조성하  
는 캠페인이다.

소미자가 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인 2만 2

천원(한국) 전액이 에이즈 펀드로 조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조성된 에이즈 펀드는 도움이 필요한 각국의 에이즈 환우를 위한 비영리 단체로 전달된다.

지금까지 전개된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1,000억 원. 이 금액은 소비자가 맥 매장에서 구입한 7백 10만 개의 립스틱과 립글라스의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지의 기업이 에이즈 예방 및 퇴치를 위해 기업 수익의 일부를 기부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제품 하나의 판매 금액 전액을 보아낸 결과로 거대한 기금을 조성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부터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 모두가 참가해서 HIV/AIDS 예방과 감염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의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MAF는 미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소외받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와 함께 해 왔다고 한다. 그 동안 인도의 성매매 노동자들을 위한 예방교육을 시행하거나, 러시아의 마약 중독 상태에 있는 젊은이들의 HIV 감염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깨끗한 주사바늘을 공급하는데 활용되는 등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운동에 새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MAF는 전 세계 에이즈 환자들을 지원하는 가장 큰 펀드 가운데 하나로, UNDP, UNICEF, UNAIDS, Elton John AIDS Foundation 등 여러 단체에 후원하면서, 에이즈의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인들의 치료 지원 및 의식주 지원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맥은 에스티로더 계열사로 색조 화장품 제조 회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맥은 제품 광고를 안 하는 브랜드로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경우가 없다. 하지만 맥은 유일하게 '비바글램' 시리즈 홍보를 위해 세계적인 스타들을 기용하여 광고 실시하고 있다.

맥에서 광고를 하는 유일한 제품이 이 시리즈이다. 비바글램은 맥에서 에이즈 펀드 조성을 위해 개발 판매하고 있는 시리즈 제품으로 현재까지 6번째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맥은 세계적인 팝스타 엘튼 존부터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린다 에반젤리스타, 피멘라 엔더슨, 디타 본 티즈 등 유명 셀러브리티와 함께 손잡고 비바글램 광고 캠페인을 합니다. 이번 비바글램의 6번째 시리즈를 위해 뮤지션 피기가 디타 본 티즈와 이브와 함께 홍보 대사로 합류하였죠.

비바글램은 맥의 영혼입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이 캠페인을 위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지요.” 맥 사장 존템시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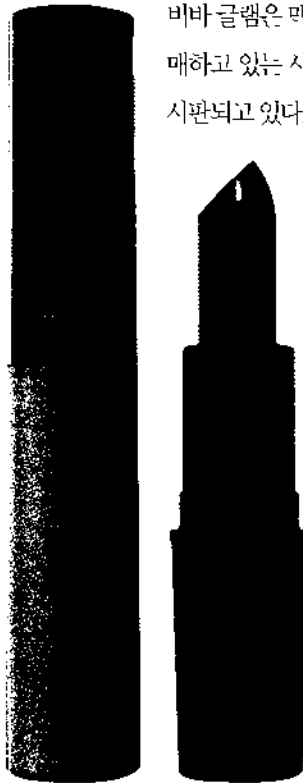
피기는 전 Black Eyed Peas의 여성 보컬이자 그래미 어워드를 3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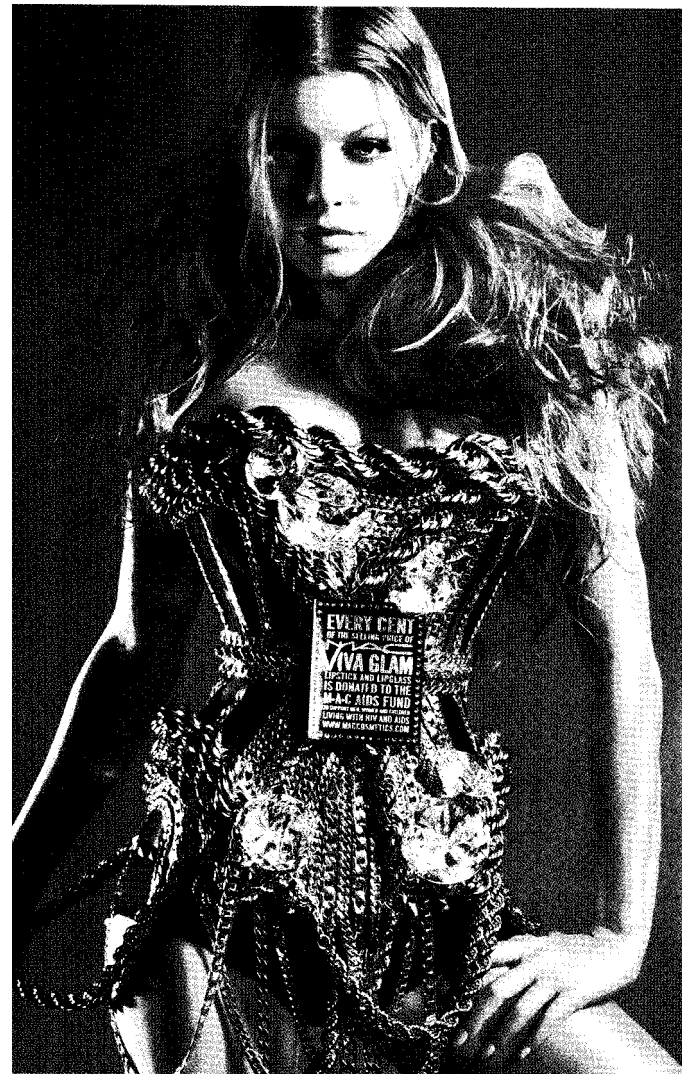
레 수상한 바 있는 세계적인 팝스타이다.

그녀의 합류와 맞춰 비바글램 6의 한정판 핑크 톤 립글라스가 출시되는데, 맥은 이 제품을 통해 추가적으로 50억 원의 에이즈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15~25세의 젊은 층의 에이즈 확산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15초에 1명씩 젊은 세대들이 HIV/AIDS에 감염되고 있지요.

새로 출시되는 립글라스의 판매 금액은 모두 젊은 세





〈표 1〉 한 개의 비바 글램 제품이 할 수 있는 일  
전 세계

- 575개의 콘돔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14명을 위한 HIV 테스트(에이즈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4명의 HIV 감염인이 의료기관에 갈 수 있는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소아 에이즈 환자를 위한 치료제 87일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 산생이들을 4일간 먹일 수 있는 유아식 2리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2명의 어린이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르완다

- 에이즈에 걸린 유아들에게 11일 분의 분유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 케이프 타운 외곽에서 에이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15인분의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 50명의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기들에게 HIV 바이러스에 이즈 원인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대의 HIV/AIDS 예방 캠페인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맥 사장 존햄시는 이렇게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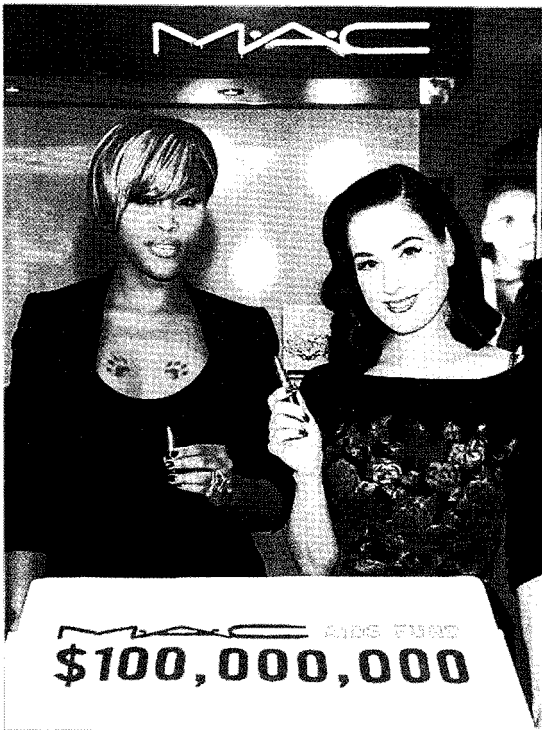
한편 한국 맥의 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직까지 국내 에이즈 감염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MAF 본부에서는 한국에서 조성된 펀드를 해외에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다고 한다.

하지만 맥 브랜드 매니저인 김정선 이사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국내 소비자가 MAF의 취지에 동참하여 조성해 준 귀한 기금은 국내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 지원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맥은 지금까지 해외에서 매해 1백 개가 넘는 에이즈 단체에 이 기금을 기부해왔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3년 전부터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현재까지 3억 8천 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해 왔죠. 이는 1회적인 지원에서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비바 글램 캠페인은 계속해서 MAF 국내 기금을 조성해 내고 있기 때문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질 것입니다.”



김 이사는 국내에서 에이즈 문제를 상업적 매장에서 다룬다는 것이, 특히 화장품 판매 매장에서 다룬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세일즈 컨퍼런스에서 에이즈 예방 교육과 MAF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다루었다고 한다.

특히 감염인 당사자와 직원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통해 비바 글램 캠페인에 참가하는 직원들을 동기부여시켰으며, 단순히 교육만 실시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바 글램 판매율을 선정하고 해마다 상위 순위에 든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는 것으로 캠페인 참가 의지를 더욱 더 높여 나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결과일까, 국내 비바 글램 기금 조성 속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으며, 작년 한해만 1

억 원은 모금할 수 있었다며 관심을 표명해준 직원과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MAF 홍보 자료에는 비바 글램 립글라스, 립스틱을 한 개 구입하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표1>

우리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는 MAF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기금을 지원받아 에이즈 익명 검사 상담실 운영과, 에이즈 환자에게 무료 간병인을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비바글램 제품 1개가 구매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에이즈 전문 상담과 검사를 7회 실시할 수 있으며, 의지할 곳 없는 에이즈 환자에게 무료 간병인을 5시간 파견 할 수 있습니다.’